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4월 8일(주일) 제1191호

“사막에서 재배한 딸기”



더멋진세상 통해 세네갈 빈민 사막에서 결실 맺어 4월 22일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NGO 더멋진세상이 이번에는 사막에서 딸기를 재배했다. 아프리카 세네갈 본 나바 마을에서 재배한 딸기가 얼마나 크고 맛이 좋은지 모른다. 사막에서 재배한 딸기는 아프리카 세네갈 주민들의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져 황폐한 마을을 변화시키는 핵심 작물로 자리 잡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아프리카에서 농업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사실 아프리카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것 자체가 생소한데 이렇게 크고 맛 좋은 딸기를 수확한 것은 이례적이다. 딸기 외에도 양배추, 양

파, 당근, 무 등을 재배해 월평균 40달러 이상의 소득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모래 땅에서 재배한 작물은 품질이 떨어지고 판매단가도 낮아 실제적인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데 NGO 더멋진세상은 친환경 농업사업으로 그 한계를 극복해냈다. NGO 더멋진세상은 세네갈 본 나바 마을에서 농업사업 외에도 도로건설,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4월 22일 실시된다. 이날 예배에서 나눠주는 정기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로 참여할 수 있다.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당일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로비와 이천만광장, 양재 온누리교회 원형광장 등지에서 선교체험 테이블이 운영된다. 아프리카 우간다와 르완다 커피를 맛보고, 남수단 난민촌 VR과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등을 체험할 수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21개국에서 더멋진마을 조성, 취약계층 어린이 생명 살리기, 긴급구호, 난민 케어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02-2271-2248

홈페이지: <http://abetterworld.or.kr>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장애인 돕는 사업장

굿윌스토어 기증 캠페인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아주 특별한 캠페인이 실시된다. 온누리교회와 굿윌스토어가 함께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생활용품 기증 캠페인을 벌인다. 참여방법은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 설치되는 굿윌스토어 수거함에 생활용품을 가져다 넣으면 된다. 기부할 생활용품이 많을 경우 굿윌스토어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캠퍼스(부천, 수원, 대전, 남양주, 평택, 인천, 강동, 양지)는 생활용품을 자체적으로 모아서 굿윌스토어에 한꺼번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부 가능한 생활용품은 집에서 잠자고 있는 의류, 잡화, 도서, 가전제품 등 쓸 수 있는 물건이다. 흔하디 흔한 대형 가전제품이나 손상이 심한 가구, 이미 사용된 속옷, 양말, 수영복 등은 기증 할 수 없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과 화장품도 마찬가지다.

온누리교회와 굿윌스토어가 함께 실시하는 생활용품 기증 캠페인에 참여하면 세 가지 유익이 있다. 첫째, 기부할 물건을 찾으면서 집을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셋째, 기증한 물건이 기부금으로 책정되어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혜택에 활용할 수 있다.

굿윌스토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선(善)한 기업이다. 굿윌스토어에서는 성도들이 기증한 생활용품을 수선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100명이 넘는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굿윌스토어에서 일하고 있다.

문의: 02-6910-9191, www.miralgoodwill.org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오늘부터 '행복드림콘서트' 참가자 모집

60세 이상 믿지 않는 부모대상

2018 행복드림콘서트 '사랑하는 부모님께 행복을 선물합니다' 참가자를 오늘(8일)부터 모집한다. 60세 이상 믿지 않는 부모님이 그 대상이다.

부모초청 맞춤형도전대회 '행복드림콘

서트'는 5월 14일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이재훈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가수 윤복희, 가수 가야랑, 플루트 연주자 송솔나무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신청은 주일에는 맞춤형도전대회 안내데스크, 평일에는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이 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SNS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행복드림2018'을 검색한 다음 친구추가를 하면 등록신청, 집회안내, 공지알림, 1:1채팅 문의가 가능하다. 선착순 마감이니 서둘러야 한다.

문의: 02-3215-3214, 010-5914-3214

/ 이소정 기자

확대 당회

일시: 4월 14일(토) 오전 6시 서빙고 두란노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24時 예수님과 동행 가능하다

‘예수님과 동행일기’ 쓰고, 나눔방에서 나누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면 가능하다. 예수님과 동행일기는 아침에 눈뜨자마자 예수님을 생각하고, 밥 먹고, 누군가와 만나고, 잠을 잘 때도 예수님을 생각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열렸다. 위지엠(With Jesus Ministry, 대표 유기성 목사)이 주최하는 ‘예수님과 동행일기 세미나’가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과 동행일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지 그 방법을 정리했다.

/ 이소정, 권찬송 기자



‘예수님과 동행일기’의 중요성을 강의하고 있는 유기성 목사.

‘복음’이라는 노래에는 가사와 곡조가 있다. 가사가 복음의 내용과 지식이라면 곡조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하게 동행할 때 비로소 복음을 노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족처럼 함께 살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동행이다. 예수님과 동행일기는 어떻게 쓰는 걸까?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일기형식으로 쓰면 된다. 예수님과 동행일기는 삶속에서 예수님과 관계 맺는 훈련이다. 일기를 쓰면서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동행일기 써야 하는 이유

예수님과 동행일기는 예수님이 매 순간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삶에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많은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받고, 수련회를 간다.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그 순간뿐일 때가 많다.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십상이다. 왜 그럴까? 죄의 유혹이 강해서 혹은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모든 순간에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일기’다. 밥을 먹을 때,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느끼는 것이다. 죄의 유혹이 올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이 함께하심이 믿어지는 것이 곧 ‘예수님과의 친밀함’이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다.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면 크게 다섯 가지 유익이 있다. 첫째, 예수님과 친밀해진다.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사소한 질문까지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첫 걸음이다. 둘째, 은밀한 죄가 없어진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는 죄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죄를 멀리하게 되면서 일상의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 셋째,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넷째, 말씀 목상이 깊어진다. 매일 성경말씀을 묵상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다. 예수님과 동행일기는 오늘 묵상한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섯째, 기쁨과 감사가 넘친

다. 더 이상 사람의 칭찬과 평가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는 것은 여인이 아기를 해산하는 것과 같다. 그만큼 쉽지 않다. 어색하기 때문에 더 힘들다. 무엇보다 마귀가 이 과정을 싫어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도 있다. 그러나 출산할 때 고통스럽다고 그만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산모도 아기도 죽기 때문이다. 더욱 힘을 내라고 한다.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예수님과 동행일기도 똑같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일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친밀해지고,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다.

동행일기 공유하는 ‘나눔방’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나눔방’을 활용하는 것이다. 나눔방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4~6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나누는 것이다. 나눔방의 목적은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

나눔방의 장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혼자 쓰는 것보다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각자 묵상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영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둘째, 스스로의 영적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집회에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을 판단을 하게 됐다고 하자. 그런데 나눔방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성도의 간증을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신이 교만했음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동행일기를 통해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게 된다. 셋째, 한 줄만 쓰더라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동행일기 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라는 짧은 문장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어린 고백이라면 괜찮다. 실패를 기록하는 것이 곧 승리이기 때문이다. 기록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영적심방을 할 수 있다. 영적심방은 다른 사람의 동행일기에 댓글을 달아주는 것이다. 이것은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이다. 댓글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다. 실제로 우울증에 걸린 A성도가 공개 나눔방에 자살충동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동행일기를 공개했다. 그때 백 개가 넘는 응원의 댓글이 달렸다. A성도는 그 댓글을 보고 자살충동을 이겨냈다고 고백했다. 다섯째,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우리는 완벽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학력, 가

정형편, 나이 등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행일기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나누며 서로 용납하고, 함께 화해하게 된다. 이러한 살아있는 연합을 통해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예수님과 동행일기 이렇게 쓰면 된다

예수님과 동행일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기를 쓰고 그 내용을 서로 나눈다는 점이다. 이때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영성일기 사이트(www.journalwithjesus.org)와 ‘영성일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 ‘영성일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다. 회원가입을 한 다음 나눔방에 참여한다. 이미 개설된 나눔방에 가입하는 방법과 신규 나눔방을 개설하는 방법이 있다. 나눔방 배정이 되면 영성일기를 작성할 수 있다.

영성일기를 작성할 때 주님 바라보기, 순종하기 정도를 파센트로 매겨보고, 하루 동안 큐티와 기도를 했는지 체크할 수 있다. 또한 가이드쓰기를 체크하면 초보자를 위한 질문 5가지가 나온다. 그 질문에 답하면서 일기를 쓰면 된다.

이 외에도 유기성 목사의 ‘칼럼’, 영성일기 ‘추천글’,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전체 공개한 ‘공개글’을 통해 영성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문의: 031-753-2703

초보자를 위한 예수님과 동행일기 질문 5가지
1. 오늘 하루 중 예수님이 생각났을 때는 언제 입니까?
2. 성경통독과 큐티를 통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3. 오늘 하루 중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에 따라 순종한 일은 무엇입니까?
4. 말씀을 주신 것 중에 불순종했던 것은 무엇 입니까?
5. 감사기도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일기 쓰기 Tip
1.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일상을 나눈다.
2. 너무 은밀한 내용까지 다 나누지 않아도 된다.
3. 틈틈이 기록하거나 아침에 하루 일과를 생각하며 미리 써보는 것도 좋다.
4. 나눔방은 동성끼리 개설할 때 더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다
5. 나눔방에서 충고하는 댓글은 삼간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복된 날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예수님의 역사상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면 우리 삶에는 신앙의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해야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자랑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부활의 보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19~20절).

우리는 2천 년 전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과거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지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란 유대 절기 가운데 첫 곡식 다발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남은 모든 것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가올 추수에 대한 보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의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불완전한 관계에 있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지금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

예수님은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육신 이전의 생명으로 되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줄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변화된 생명에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21~22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와 연결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누리시는 생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먼 훗날 죽음 이후 누릴 생명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부활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세상의 마지막이 오게 될 그 때에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추수가 하나님께 드리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합니다”(24~25절).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분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려는 것입니다”(28절).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구분된 ‘나중’, ‘마지막’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세상의 종말 때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구속 받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속하는 일입니다. 24절에 나온 ‘그 다음에’, ‘그때’ 모든 권세와 권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는 죽음입니다. 마지막 권세인 죽음을 멸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물이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만물은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롬 8:21).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최후의 무기인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사탄뿐만 아니라 모든 사탄의 종개들도 이미 그리스도께 복종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땅에서도 그 승리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탄의 세력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며, 죄와 죽음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일어난 승리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사탄의 패잔 세력들을 소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평정해 가고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영적 전쟁 시기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기간을 2차 대전 이후 사용되었던 ‘D-Day’와 ‘V-Day’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D-Day는 ‘Decision Day’, V-Day는 ‘Victory Day’입니다. 1944년 6월 당시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서 독일군을 결정적으로 무찔러서 승패가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그때를 D-

Day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독일군을 완전히 소탕한 것은 거의 1년이 지난 1945년에 이르러서입니다. 베를린이 함락됨으로써 독일이 항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날 V-Day입니다. D-Day와 V-Day를 사용해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 D-Day입니다. 승리가 확실하게 결정된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탄의 종개들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정하고 진압하는 완전한 승리의 날 V-Day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벧후 3:10-13).

마지막 V-Day 때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물리적인 세계가 해체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늘과 땅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자연만이 실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자연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또 다른 자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자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C. S. 루이스는 <기적>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새로운 자연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여러 자연이 존재한다. 지금의 자연 위에 새로운 자연이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새로운 자연의 문을 연 최초의 사건이다.”

부활의 생명과 새 하늘과 새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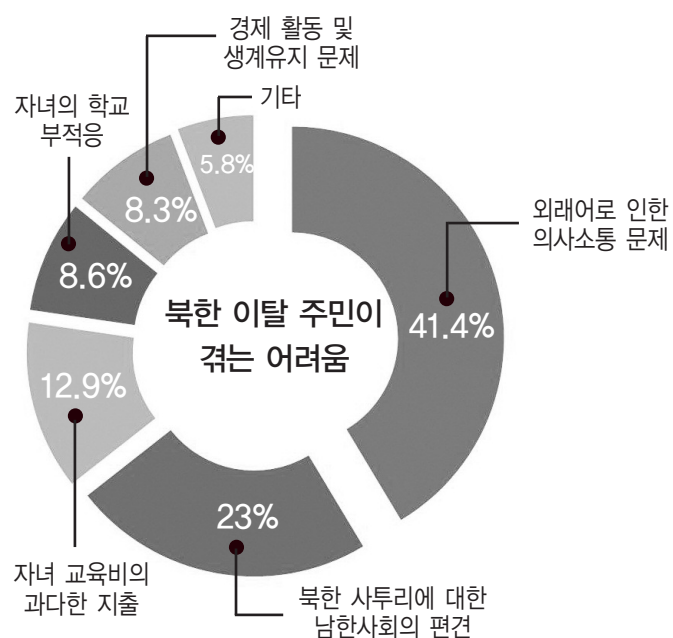
예수님은 “너희가 있을 곳은 예비하러 한다”(요 14:2)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할 것”(요 14:3)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위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은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자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 안에 전혀 새로운 우주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3편에 계속>

탈북민과 통일 그리고 교회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통일' 탈북민에 대한 편견 깨뜨리고, 적응 돕고, 통일사역자 세우기

남북관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이달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도 준비가 한창이다.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따스한 봄볕에 녹으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 시기 교회와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 최일선에서 사역자로 활동할 탈북민들을 품고 섬기는 일이다.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상처를 치유하며 통일사역자로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은 오직 교회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북한 복귀를 생각하는 이유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35.6%



가족이 그리워서
31%



고향이 그리워서
26.4%

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수는 일은 교회가 할 수 있는 통일준비의 시작이다. 교회와 성도들이 나서서 탈북민들을 품고, 수용하며, 그들의 적응과 정착을 적극 도와야 한다.

가장 먼저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뀌어야 한다. 탈북민들을 '통일의 마중물', '통일사역자', '통일 일꾼'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들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이 되고 난 이후 최일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교회와 성도가 탈북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어우러지는 것이다. 김정남 권사(가정사역공동체)는 양아들이 두 명이나 있다. 둘 다 탈북민이다. 김 권사는 그들과 수시로 전화통화하면서 안부를 묻고, 맛있는 밥도 먹이고, 때로는 조연도 해준다. 친자식과 다름 없다. 김 권사의 사랑 덕분에 두 양아들은 나름 성공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있다.

“하나원교회 그룹모임을 섬기러갔다 탈북 청년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너희들 내 아들 하자’고 했더니 ‘네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그 때부터 양아들 두 명이 생겼어요. 작은아이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고, 큰아이는 독일로 유학을 간대요. 제가 그들에게 해준 것은 별로 없어요. 그냥 아들 삼고 교제한 게 다예요.”

김 권사와 두 양아들처럼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힘쓰는 이들이 많다. 대부분 탈북민들이 국내로 들어온 다음 교육을 받는 하나원을 찾아가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 하나원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60~70%가 탈북과정과 하나원에서 교육 받으면서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듣는다”고 한다.

올해 초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민 D자매는 하나원을 수료하자마자 유주석 팀장(하나원 사역팀)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교회에 가고 싶어요. 아는 교회를 연결해 주세요.”

유주석 팀장은 그 자매를 온누리교회와 연결해 줬다. 그 자매는 “모든 것이 힘든 시기인데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 덕분에 큰 위로를 받고 있다”고 감사인사를 했다.

교회를 기피하는 탈북민들도 있다. 교회의 일시적인 관심이 교회를 기피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어떤 교회는 “한국 오느라 수고 많았다”며 눈물 흘리며 맞아주는데, 어떤 교회는 주일에만 반겨주는 것이 싫다고 지적했다. 꾸준한 사랑이 통한다. 탈북민 F자매는 “

소수자, 주변인, 3등 시민, 아웃사이드...

세상이 탈북민들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이다. 탈북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우리 사회가 탈북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북한 사람들은 고집이 너무 세서 말이 안 통한다”, “허풍이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 등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들도 많다.

탈북민들도 마찬가지다. 남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남한에는 사기꾼들 천지예요”, “질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북에서 왔다고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등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오해들이 쌓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한과 북한이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생겼다. 오랜 기간 갈등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뿐만이 아니다. 목숨 걸고 남한에 온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탈북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남한과의 문화차이도, 경제적 어려움도 아니다. 남한 사람들의 냉대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범죄 피해율이 24.3%나 된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범죄 피해율이 4.3%인데 5배가 넘는다. 사기 피해율도 한국 사람보다 탈북민들이 43배나 높다. 탈북민 5명 중 1

명꼴로 사기를 당하는 셈이다.

이처럼 탈북민들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고,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 것 자체가 괴롭다. 실제로 탈북민이라고 밝히면 직장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승현 교수(기전대학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당한 차별 사례를 밝히기도 했다.

“졸업하고 100군데 넘게 지원을 했는데도 취직이 안 돼서 큰 상실감에 빠져있었어요. 그런데 제 이력서에서 탈북민이라는 표기를 뺐더니 바로 합격통지가 오더라고요.”

한국에는 3만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있다.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남한에 왔지만 그들의 삶은 그리 행복하지 않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10명 중 2명이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고, 탈북민 대부분이 한국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탈북민에 대한 각종 편견과 차별(31.7%)’, ‘능력과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격차(25.3%)’, ‘남한 사회·문화에 적응(24%)’ 등의 순이었다.

탈북 청소년들도 한국사회 적응이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문화와 언어 적응(14.9%)’, ‘친구관계(8%)’ 등이었다.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워 탈북 청소년 대부분이 대안학교에 다니는데 대학생이 되어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사회에 적응이

힘들어서 다시 해외로 떠난 탈북민이 700여 명에 달한다. 탈북민 10명 중 2명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북민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부수고, 그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적극 도와야 한다. 그 역할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다.

탈북민이 남한으로 오기 시작하자 당시 한국 교회는 탈북민에 대한 사역을 공홀과 구제에 초점을 맞췄다. 탈북민들이 교회에 찾아오면 구제금을 주거나,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소일거리를 소개해 줬다. 그러자 몇몇 탈북민들은 교회가 구제금을 주지 않거나 더 많은 구제금을 주는 교회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더 많은 구제금을 받으려고 교회를 옮기는 탈북민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도 없다.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탈북민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도 받는 돈이 훨씬 적다. 남북협력재단에 따르면 2016년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7.9%, 고용률은 55%에 불과하다. 탈북민들이 버는 돈이 현저히 적다보니 노후를 아예 준비하지 못한 탈북민이 과반 이상이다. 탈북민 56.3%가 노후준비를 아예 하지 못하고 있다.

탈북민 위한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

탈북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탈북민



탈북민들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있다.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남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었다”며 “교회만큼 따뜻하고 성도들만큼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만난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교회와 성도들이 탈북민들과 진심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성도 한 명이 탈북민 친구 한 명을 사귀면 3만 2천명의 탈북민 모두에게 남한 친구가 생긴다. 탈북민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성경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행복하다. 그저 탈북민들에게 교회와 성도가 삶의 위로이자 휴식이 되어주면 된다.

탈북민을 위한 예배공동체를 찾아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좋다. 탈북민 전문사역자들은 탈북민들만 있는 공동체를 ‘반쪽’이라고 표현한다.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헌신하자. 매주 주일 한누리본부(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건물 6층)에서 ‘한터공동체’가, 매주 주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JDS홀에서는 ‘한누리공동체’가 예배드리고 있다. 부천 온누리교회에서는 탈북민과 함께 ‘한사랑예배’를 드리고 있다.

탈북민들을 위한 사역팀과 기도모임도 있다. 하나원사역팀은 탈북민들의 주일예배와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교회 연결을 돕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401호에서는 ‘남북친구모임’이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선교관 403호에서는 ‘북한중보기도모임’과 양재 온누리교회 JDS홀에서는 ‘살렘기도회’가 열린다.

문의: 한누리 02-3463-9686

전문가 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선물



황문규 목사
(하나원 하나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원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통일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라고도 한다. 탈북민들은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교육을 받고 배정된 정착지로 가게 된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31,339명에 달하고 있다. 각 기수별 교육생은 대략 100여 명인데, 이중에서 하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는 평균 60%이상에 달한다. 이는 탈북과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선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탈북민들이 하나원에 머무는 동안 최대 12번 주일예배에 출석할 수 있다. 하나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 초교파적으로 30여 개 교회가 정해진 일정대로 매주 주일 하나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소그룹모임을 하고 있다. 매일 새벽예배가 있는데 30명 내외의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고 있다. 매월 하나원 수료 직전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다. 최근 3년 동안 1년 평균 3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세례를 받았다.

하나원에 있는 동포들은 대부분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날카로운 상태다. 탈북 장면과 비교해보면 절대적으로 안전한 상태에 있고, 의식주 등 환경적으로도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고향을 떠나 하나원에 이르는 동안 험한 산과 깊은 골짜기를 무수히 건너왔기에 심신이 지치고, 영혼이 병들어있는 경우도 많다. 더욱이 고향과 제3국에 두고 온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쉽게 극복할 수 없다. 동포들은 마음과 영혼의 아픔을 신앙으로 이겨내고자 몸부림치기도 한다. 새벽예배에 졸린 눈을 비비며 찾아온 많은 이들이 알람도 없이 새벽을 깨우는데 사실상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을 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정착지의 교회에 출석하면 또 다른 차원에서 문화충격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 하나원 밖 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교회들은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하나하나 그리고 차근차근 안내하고 보듬어 줘야 한다.

60%이상의 탈북민들이 하나원에서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새벽예배까지 열심히 드린다. 하지만 하나원 수료 이후 교회에 정착하는 탈북민들이 그리 많지 않다. 하나교회와 하나교회를 섬기는 여러 교회들이 서로 연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탈북민들이 문화충격을 이겨내고, 인간관계의 어색함을 극복하고, 교회에 정착하기까지가 쉽지 않다.

탈북민들의 교회 정착이 어려운 원인 몇 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석한 교회 부적응, 둘째, 생계를 위한 일자리 환경과의 갈등, 셋째, 건강상태, 넷째, 극단적 자유 혹은 인간관계에서 비롯한 우선순위 변화 등이다.

교회에 잘 정착한 탈북민들도 동일한 조건에 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탈북민을 이해하고, 이끌어주는 한 사람의 조력자와 동역자가 필요하다. 탈북민들도 새로운 환경과 분위기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해야 겠으나 교회와 성도들이 탈북민들을 얼마

나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더 깊게 생각해보야 한다.

지난 수년 동안 매일, 매주, 매달 새로운 탈북민들을 만나면서 든 생각이 있다. 탈북민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그 마음가짐은 동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섬김이나 행사 혹은 모임 등을 준비하다보면 많은 봉사자 및 관계자들이 탈북민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해가 부족한 섬김은 하는 사람만 좋은 일방적인 사역으로 남기 쉽다. 종종 선물을 준비해서 탈북민들을 찾아오는 것으로 섬기려는 경우가 있는데 탈북민들에 대한 뜨거운 관심만큼 그들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탈북민들은 무엇인가를 전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저 친구와 이웃이 되려는 마음으로 탈북민들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탈북민들과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면 그들이 왜 마음이 아프고, 무엇이 힘든지를 알 수 있다. 거기서부터 비롯한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면 진실 된 만남, 모임, 사역이 되리라 생각한다.

탈북민들과 친구 되기

우리 주변에 북에서 온 탈북민들이 3만 명 넘게 있다. 아직 탈북민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대화해보지도 못한 성도들은 그 수가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조금 줄었지만 탈북민들이 매일 100여 명씩 꾸준히 한국에 입국을 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탈북민을 친구로 만나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정착지에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이들을 친구로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들의 수줍은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할 때다.

우리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의 하나센터를 통해 정착지에 찾아온 동포들의 도우미가 되는 것이다. 탈북민들과 일대일로 만나서 이런저런 안내를 해주고, 도움을 주면서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가 된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에도 이미 동포들이 찾아왔을지도 모른다.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응원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식사하고, 차도 마시면서 의미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기회를 가져보기를 추천한다.

탈북민들의 생각이나 고민은 남한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학업이나 취업 혹은 자녀교육 등 우리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먼저 경험한 것이 있으면 물어주면서 건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그들을 초대하기를 기대한다.

1990년대 말 이후 입국한 동포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부처와 여러 기관들이 그들을 교육하고 안내하기 위해 수고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귀한 섬김을 자처하고 헌신했다. 많은 교회가 탈북민 구출에서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베풀고 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동포를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북녘의 2천 5백만 동포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기를 결단하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찾아온 동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바른 길을 안내하기를 바란다. 탈북민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한다.

성경 속 여성들에게 ‘여성성’ 배운다!

‘헬로맘스쿨-성경 여성인물들과 함께 하는 브런치 타임’

구약과 신약시대는 가부장적인 사회였다. 여자는 남자의 재산목록 중 하나였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율법을 배울 수 없었고, 유월절과 초막절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 그런 시절에도 성경 속 여성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수많은 남성들의 이적과 역사 뒤에는 늘 여인들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핍박 받을 때도, 부활의 순간에도 그 자리에는 여성들이 있었다. 성경 속 여성들의 삶을 통해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엘리야 등 성경에는 수많은 위인들이 등장한다. 대부분 남성들이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거나, 자신의 민족을 이방 땅에서 건져내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한 이들은 대부분 남성이었다. 그런데 남성들의 이적과 역사 뒤에는 늘 여인들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다. 인류의 기원인 하와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사라, 히브리 노예 해방의 공동주역이었던 미리암, 가나안에서 태평성대를 일군 드보라 사사, 미전한 신분을 넘어 예수의 족보에 오른 기생 라합, 민족을 살린 고아 소녀 에스더, 모든 여성 가운데 은혜 받은 자(눅 1:28)라는 칭송을 받을 만큼 복 받은 메시아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그 주인공이다.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믿음의 여인들도 많다. 나아만의 여종(왕하 5:1~15), 사마리아 여

인(요 4:4~28), 동전 두 닢을 헌금한 과부(눅 21:1~4)처럼 비록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돼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기록한 믿음의 여성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남성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의 크나큰 힘이 되어준 동역자도 여성(브리시길라, 뵈뵈 등)이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로 인해 민족과 나라가 구원을 받았다. 한없이 연약한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옳은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희생을 감내했다. 그렇게 역사를 바꾼 주체(主體)가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통해 여성, 아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스쿨이 열린다. 바로 ‘헬로맘스쿨-성경 여성



지난해 브런치 타임에서 여성들이 성경적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인물들과 함께 하는 브런치 타임’ (이하 브런치 타임)이다. 4월 13일부터 5월 25일까지 6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열린다. 브런치 타임에

서는 사라, 리브가, 나오미와 롯, 에스더, 로이스와 유니게,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 등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의 삶을 나누면서 성경적 여성성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힌다.

날짜	주제	시간 및 장소	문의
4월 13일	속사함을 단장한 여인 '사라'	오전 10시 30분~1시 서빙고 시온홀	총무 010-2786-6221
4월 20일	성숙한 삶으로 믿음의 가계를 이은 '리브가'		
4월 27일	비움에서 채움으로 인생이 변한 '나오미와 롯'		
5월 11일	생명을 주는 화석류의 꽃 '에스더'		
5월 18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룬 '로이스와 유니게'		
5월 25일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		

목회칼럼



김미향 목사
(S브릿지공동체, 헬로맘스쿨 담당)

이 시대는 진리가 훼손되어 있는 혼란한 시대이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삶도 혼란하긴 마찬가지다. 세상적인 혼란이 삶에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정체성 혼란이 심각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과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세상은 남자와 여자를 극단적으로 분리해 놓고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 지으셨다. 그러나 따로 떼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이었다.

나는 ‘헬로맘스쿨’ (출산전스쿨, 출산후스쿨)을 진행하며 많은 여성들을 만났다. 그들은 헬로맘스쿨에 와서 성경적인 태교방법을 배우고, 자녀를 하나님 관점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했다. 그런데 그녀들에게 여성으로

서의 진정한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것이 아쉬웠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이다.

성경적인 여성성이 먼저 올바르게 정립돼야 여성, 아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다.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도 확립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여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여성성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나타내고 계신다. 대표적인 예가 ‘열국의 어머니’ 사라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묵묵히 순종했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세워지게 된 배경에는 사라라는 믿음의 여인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를 두 번이나 팔았다. 아내의 입장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크나큰 아픔이었다. 그런 힘든 과정에서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비난하거나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갔다. 대체 사라는 붙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을까?

여성, 아내, 엄마로서의 정체성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벧전 3:6).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했다. 사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요즘 여성들은 옛날 같지 않다. 많이 배웠고, 똑똑하며, 경제력도 있다. 남편보다 능력 있는 아내들도 많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내가 자신보다 못한 남편에게 순종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사라는 어땠을까? 남편이란 사람은 살기 위해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팔려고 했다. 그런데 사라는 그런 비겁한 남편에게도 순종했다. 왜일까? 사라는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질서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아내로서의 정체성이자, 그녀가 붙든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열등해서, 그의 노예라서 순종한 게 아니다. 남편이 가장(家長)으로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지원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갔을 때 비로소 남편이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로 설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순종한 사라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히 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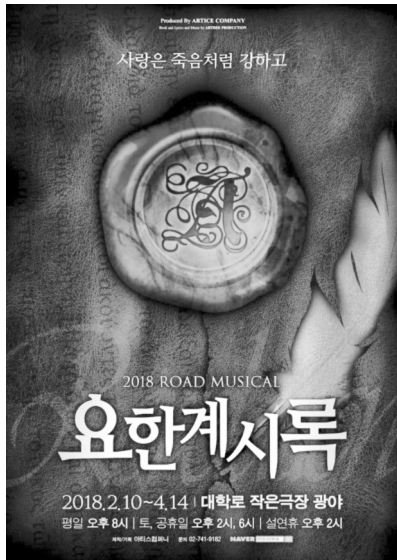
남성의 카리스마는 힘이다. 여성의 카리스마는 부드러움과 지혜이다. 흔히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한다. 여기서 ‘돕다’의 히브리어 ‘에제르’는 ‘성령께서 도우신다’의 뜻과 같다. 여성이 남성보다 힘이 없어서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듯 여자의 부드러움과 지혜로 남성을 도와야 한다. 남성과 가정과 이 세상을 도와서 아름다운 세계를 조화롭게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여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질서이다.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다. 여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성으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 속 여성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미 알려주고 계시다.

‘헬로맘스쿨-성경 여성인물들과 함께 하는 브런치 타임’을 통해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를 바란다. 성경 속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통해 속사람이 단장되고, 현숙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볼만한 공연 뮤지컬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한계시록 읽는 것을 어려워한다. 내용이 어렵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공연이 나왔다. 바로 뮤지컬 ‘요한계시록’이

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의 그 어려운 내용을 아주 쉽고 친근하게 풀어주면서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랑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이 시대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관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한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의 등장인물은 ‘에클레시아(회복된 교회)’와 ‘아도나이 왕자’(예수)다. 에클레시아는 아도나이 왕자와 사랑에 빠진 여인이다. 그녀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한 아도나이 왕자를 그리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낸다.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아가던 그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쁜 일이 찾아온다. 바로 죽

은 아도나이 왕자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왕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올 거라는 말만 남긴 채 사다아 왕(하나님)에게 돌아간다. 왕자는 에클레시아에게 자신의 심부름꾼 팔라클레토스(성령님)를 남기고 하늘로 떠난다.

홀로 남겨진 에클레시아는 팔라클레토스와 함께 바벨론의 일곱 도시를 돌아다니며 아도나이 왕자의 사랑을 전한다. 팔라클레토스가 모든 여행을 인도한다. 그런데 벨리알(사탄)은 에클레시아의 여행을 방해하며 아도나이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만든 작품이다. 이필찬 교수(이필찬 요한계시록연구소)가 깊이 있고 정확하게 본문을 해석한 다음 뮤지컬로 탄생시켰다.

요한계시록은 흥행이 보장된 작품이다. 2015년 초연 당시 20여 회 공연 모두 만석

을 기록했고, 2016년에는 두 차례의 앙코르 공연을 했는데 객석점유율 100%였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4월 14일까지 대학로 작은 극장 광야(서울 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100 쇠대박물관 지하1층)에서 평일 오후 8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2시와 6시에 막 오른다. 초등학생 이상(만 7세 이상)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공연은 예매방식으로 진행된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공연하고 있는 ‘문화행동 아트리’는 전문화된 문화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문화행동 아트리에서 진행하는 ‘1.1.1 문화 전도 프로젝트’ 일환이다. 1.1.1 문화 전도 프로젝트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화행동 아트리가 선보이는 공연은 복음 앞에 서는 예배이기 때문에 ‘공연예배’라고도 불린다. 문의: 02-741-9182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황숙희 권사의 백수(白壽)로 이어진 삶과 신앙의 지혜서 2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와 집에서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와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시편 92편 12~15절 말씀 같이 백향목 같은 믿음은 늙어도 결실한다. 늙는 법이 없다. 주름은 질지 몰라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 의인은 힘이 넘친다. 의인에게 박진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오나 나는 내 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 되시기 때문이다.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백향목은 날이 갈수록 윤택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윤택한 사람이 되고, 태평양같이 마음이 넓고 인격이 고고해지고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윤택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 새 사람이 된다. 백향목은 곧 나무로 정직한 것을 의미한다. 의인은 백향목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레바논 산(화이트 마운틴)의 해발 3,000미터가 넘는 산꼭대기에는 흰 눈이 덮여 있다. 이곳에서 백향목이 성장하고 아래는 종려나무가 자란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은총과 축복을 받을 것이다. 늙어도 청청하고 진액이 풍부하여 여호와와 정직하심을 드러낸다. 육신은 고이 잠들고 흠으로 돌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이하여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다시 산다.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는 삶을 깨끗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죽음과 절망을 생각할 수 있는 노년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는다. 이 영적 축복을 받고 거듭난 자로서 날마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것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 안에서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8~9절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씀처럼 이 즐거움과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참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

영원히 살고 싶은 바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공통적 욕망이라는 것이 문명과 역사를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불로초에 대한 집착을 끝내 버리지 못했던 진시황의 야사는 지금도 널리 회자되고 있고, 찬란한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집트의 유물과 유적 속에도 영생에 대한 강한 염원이 담겨져 있다. 죽은 사람의 무덤인 피라미드나 제사를 지냈던 스

핑크스 신전도 모두 영생을 바라며 만든 유물들이다. 영생의 집념은 이집트 최연소 왕이었던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와 순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관을 보면 알 수 있다.

때때로 역사는 빠르게 흘러간다. 역사평론가들이 미처 따라갈 수 없어 뒤늦게 땀질을 할 정도인데 이것은 힘으로 막으려는 인간의 그릇된 생각 때문일 것이다. 강물은 말뚝이나 돌로 막지 못한다. 어느 누가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 있으며 감히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것인가.

신앙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

전도서 기자는 인생에 대해 “헛되고 헛되다”(전도서 1장 2절)고 고백했다. 야고보는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야고보서 4장 14절), 베드로는 “인생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베드로전서 1장 24절)고 표현했다. 사실 인생의 종말은 참 허무하고 비극적이다. 특히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자기 힘으로 살다 가려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인생은 공평하다. 모든 사람은 늙는다. 또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죽는다. 빈부귀천이 없다. 순서는 다들지 모르지만 신앙의 사람도, 불신앙의 사람도 죽는다. 시간이 무엇인가? 시간은 정지하는 법이 없다. 시간의 흐름 속에 사람은 늙고 쇠잔한다. 나도 모르게 늙어간다. 죽음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시작된다. 생리적인 인생은 멈출 수도 없는 것이다. 죽음은 이 지상의 모든 것에 끝과 허무를 가져다준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인생의 종말은 참 허무하고 절망적이고 비극적이다.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그 얼마나 답답하고 허망할 것인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슬퍼할 필요가 없다. 죽음은 두려워할 종말이 아니라 다시 산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완전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늙는 것은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다. 성도의 삶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현실이 고난이나 방황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전진인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은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새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심을 의미한다. 부활하신 주님은 땅과 하늘 사이에 흐르고 있는 죽음의 강을 넘게 해주는 다리다. 인류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믿을 때 영생은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된다. 부활의 진리는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임을 입증하는 산 증거다. 따라서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근원이다. 부활 신앙은 믿는 자만이 가지는 특권이며 축복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하고자 하는 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직하게 되었다. 허릿길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신앙의 시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할 필요가 없다.

특별기고 유신진화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논쟁을 통해 드러난 유신진



이은일 장로
(한국창조과학회,
고려대 의대 교수)

최근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한 물리학 교수를 ‘창조론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에서 초청 강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창조론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론도 충분히 성경적이며 더 과학

적이라는 것이다. 창세기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창세기 기록을 상징적인 언어로만 취급하고 있는 신학적 입장에서 초월적 창조 대신 진화론을 받아들인 유신진화론이야말로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매력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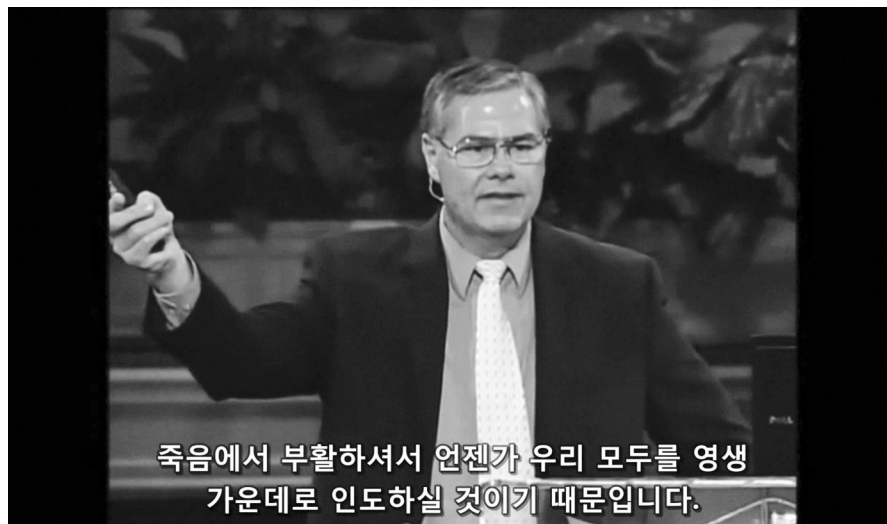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유신진화론이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신진화론의 주장만 들을 뿐 유신진화론이 실제로 어떤 과학적, 신학적 문제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문제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는 것보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논쟁을 할 때 그 주장의 신빙성과 문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조과학-유신진화론’ 사이의 공개 논쟁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두 진영의 공개 논쟁이 이뤄졌었다. 2013년 9월 30일 미국 Southern California Seminary(남부 캘리포니아 신학교)에서 열린 ‘하나님께서 진화를 이용하셨는가?’라는 세미나에서 창조과학 진영과 유신진화론 진영의 대표 연자들이 초청되어 토론회가 열렸다. 유신진화론 진영에서는 물리학을 전공한 신학자인 칼 기버슨(Karl Giberson) 박사가, 창조과학 진영에서는 의학과 공학을 전공한 랜디 글루자(Randy Guliuzza) 박사가 각각 토론에 참여했다.

2시간이 넘는 전체 토론을 보면서 과학적 증거가 없는 진화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유신진화론이 얼마나 과학적인 논리가 부족하고, 신학적으로 심각한 지경에 있는지를 더욱 알게 되었다. 전체 토론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말 번역까지 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면 된다([토론] 유신진화론 vs 창조론 하나님은 진화를 사용하셨는가).

이 글에서는 토론의 요점을 중심으로 유신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무엇이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결론 부분에서 유신진화론이 어떻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서 벗어났는지를 밝히겠다.

유신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비판 진화론 예측이 정확히 발견되고 있다?



칼 기버슨 박사와 랜디 글루자 박사의 토론회에서 랜디 글루자 박사가 발언하고 있다.

칼 기버슨 박사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은 (과학적 증거를) 관찰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 모델 중에서 예측이 가장 정확한 이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상대성이론의 예측이 나중에 관찰되었고, 우주의 배경복사 발견으로 빅뱅이론의 예측이 정확히 맞았으며, 암블로세투스 화석으로 중간단계의 생명체가 예측대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진화론의 예측대로 관찰된다는 주장 자체가 억지일 뿐이다. 고래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었다는 암블로세투스 화석 등은 단지 진화론적 상상에 의한 추정일 뿐 고래의 진화를 보여준다는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다. 실제로 화석은 진화론의 예측대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 화석들 때문에 진화론이 변화되었다. 진화론의 예측대로 중간화석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 진화론이 ‘단속평형이론(진화가 중간 중간 급격하게 갑자기 일어나 화석으로 남지 않았다는 이론)’으로 변화되었다. 이제는 진화론자들이 화석보다 DNA에서 진화의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실정이다.

생명의 진화가 사실이라면 그에 걸맞은 과학적 증거를 진화론자들이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35년간 지속된 박테리아에 대한 진화의 실험에서 나타난 것은 5만 세대를 거친 후에도 박테리아는 그대로 같은 박테리아라는 결과일 뿐이다. 또한 100여 년 동안 돌연변이 실험의 대상이 된 초파리도 여전히 초파리일 뿐이다. 수많은 화석들이 지금 살아 있는 생명체들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은 과거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실제 발견되는 화석은 고래만 고래, 육상동물이면 육상동물의 화석이지, 중간단계의 화석은 발견된 적이 없다. 진화의 초기 단계 생명체의 화석도 놀라운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화석에 대한 관찰이나 현재 생존하고 있는 생명체에 대한 실험 결과 모두 생명체들이 진

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버슨 박사는 교과서에 나오는 진화의 증거라는 말발굽의 진화를 토론에서 주장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말발굽의 진화라는 것이 말을 비롯한 말과 관련 없는 여러 생명체들의 발굽을 진화론적 해석에 따라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진화의 증거라는 것은 다양성을 제외하고는 조작되었거나 잘못된 진화론적 해석을 붙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기버슨 박사는 진화론을 상대성이론, 빅뱅이론 등과 같이 언급하면서 진화론이 권위 있는 과학적 이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상대성이론은 진화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론이고, 빅뱅이론은 물질의 진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진화론과 깊이 연관된 이론이다. 그러나 기버슨 박사가 주장하는 우주의 배경복사가 빅뱅이론의 예측 그대로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도리어 우주의 배경복사는 대폭발이론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폭발로 이러한 거대한 우주가 형성되었다면 우주의 배경복사는 균질하지 않고,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빅뱅이론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빅뱅이론 자체가 이미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빅뱅이론은 진화론처럼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물리학자들이 빅뱅이론을 서슴없이 비판하고 있다.

기버슨 박사는 진화론을 옹호하기 위해 실험을 통해 반복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만 과학이 아니며, 관찰만으로도 과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반복되는 실험만이 과학은 아니며 모든 피조세계의 질서를 실험으로 증명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론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그 이론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엄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진화론도 하나의 과학이론으로 얼마

든지 주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검증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진화론은 검증을 받는 이론이 아니라 그 이론 자체가 절대시 되었고, 모든 과학은 발견한 것을 진화론적으로 해석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진화론 자체를 비판하면 비과학적인 태도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신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비판 나쁜 디자인의 존재

모든 과학이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질서를 연구하는 것이고, 질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히 신비한 것이다. 진화론자들도 피조세계의 놀라운 질서와 디자인에 감동한다. 그런데 기버슨 박사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보면 나쁜 디자인이 있고, 그런 나쁜 디자인이 바로 진화를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체를 창조하셨다면 각각 맞춤 디자인이 되어야 하는데 생명체들은 맞춤 디자인이 아니라 동일 디자인을 적용하고 변형해서 계속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맞춤양복이 아니라 기성복에 몸을 맞춰야 하는 어색함이 생명체에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자가 유사하고, 고장 난 유전자도 공유하고 있으며, 발에 물갈퀴가 있거나 꼬리가 있는 인간도 과거의 유전자가 미처 제거되지 못하고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식도와 기도가 옆에 붙어 있어서 식사를 하다 기도도 음식이 들어가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도 나쁜 디자인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우리 몸에 이러한 나쁜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창조가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쁜 설계를 이해할 수 있고 더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버슨 박사는 진화론을 믿음을 세워주는 친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쁜 디자인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에 대한 불신 그 자체이다. 어떤 생명체가 맞지 않는 기성복을 입은 것처럼 어색한가? 각각의 생명체가 고유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잘 생존하고 있다. 모든 생명체가 DNA라는 동일한 물질로 유전정보를 구성하면서 각각 독특한 생명체의 설계도를 갖고 있는 것이야말로 초월적 하나님이 설계자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닌가?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자가 유사하다는 것도 기본적인 기능(먹고, 자고, 움직이는 등)이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사람이면 사람, 침팬지면 침팬지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은 DNA를 연구하지 않아도 초등학교 학생도 아는 사실이다. 발에 물갈퀴가 있거나 꼬리가 있는 인간은 발생 과

진화론(진화창조론)의 정체

정 중에 이상이 생긴 병일뿐인데 이것을 진화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함을 드러낸 것뿐이다. 식도와 기도가 함께 있는 것도 나쁜 디자인이 아니라 입이 호흡기와 소화기 모두에게 연결되도록 한 기가 막힌 디자인이다. 단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의 문제이고, 근본적인 것은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은 태어날 때 다른 어떤 동물보다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뇌의 기능으로 엄청난 문명을 이뤘다. 기버슨 박사는 인간의 뇌가 필요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진화됨으로써 뇌를 통해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종교적 존재가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화론이 맞다면 인간은 뇌를 필요 이상으로 진화시킨 어리석은 존재가 된다. 단지 생존이 목적이려면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뇌가 아니라 생존에 적합한 기능만을 최소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진화의 과정에서 타당할 것이다. 우리의 뇌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슈퍼 디자인되어 온갖 것을 다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은 진화론적 해석보다는 인간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섭리로 해석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서로 다른 생명체에서 고장 난 유전자를 공유하는 것을 진화의 증거처럼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는 할 말이 많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눈을 만드는 혹스 유전자 그룹은 파리, 쥐, 인간, 코끼리 모두 동일한데 그 이유는 이 유전자들이 진화 기간 중에 없어지지 않고 보존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과정 중에 고장 난 유전자가 다른 생명체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진화론을 지지해주지 않는다. 진화론이 맞다면 왜 혹스 유전자 그룹은 진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도리어 각각의 생명체의 설계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셨고, 어떤 부분은 동일한 유전자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고장 난 부위가 유사한 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진화론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불리한 증거는 복잡한 이름을 붙여 마치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 파리로부터 인간까지 유사한 유전 정보를 사용하여 눈을 만드는 것은 진화로 설명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창조설계로 설명하는 것이 맞는가? 또한 동물들의 맹장을 조사할 때 놀랍게도 여러 종류의 동물들의 맹장에서 공통적인 설계를 발견했는데 이러한 설계가 생명체의 진화의 순서에 맞지 않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 이 경우 진화론에서는 32번의 독

립적 진화를 통해 우연히 공통적인 모양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각각 진화되었지만 결국 유사한 설계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진화를 진화론자들은 ‘수렴진화’라고 부른다. 즉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진화되어 공통설계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진화계열에 있는 박쥐와 고래의 초음파 장치의 유전자 서열이 동일한 것은 수렴진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창조설계로 해석하면 간단하고 명료한 것을 진화론에 억지로 맞춰 설명하기 위해 수렴진화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 마치 진화론이 증명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교묘한 논리이다.

기버슨 박사는 바이오로그스 소속의 신학자인데, 바이오로그스는 인간계놈프로젝트 연구책임자로 널리 알려진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가 세운 기관이다. 콜린스 박사는 계놈프로젝트 연구 결과 인간의 유전자에 기능이 없는 쓸데없는 ‘쓰레기 DNA(Junk DNA)’가 가득했고, 이것은 진화의 오랜 과정을 반영하는 것

정직하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며, 그런 과학자들이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글루자 박사는 과학자들이 신뢰할만한 사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역사의 사례를 들어 반박하였다. 1930년대 미국의 과학자들은 우등한 유전자를 살리기 위해 열등한 사람들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을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931년 31개 주에서 우생학에 의한 강제 불임수술이 합법화되었으며 7만 명 이상이 강제 불임수술을 받았다.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 일이지만 당시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열등한 인간이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인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사실 일부 과학자들만이 진화론을 연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주

해석이 있는데 특정한 해석만을 고집하며 고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주관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과학의 발견을 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기독교가 수천 년간 은유를 사용한 것을 활용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책과 자연의 책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경의 언어를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진화론과 성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기버슨 박사는 죄의 기원에 대하여 성경의 은유와 진화론을 접목해서 설명한다. 죄는 아담의 범죄 하나의 사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생명체가 진화하면서 발전한 것이며, 인간이라는 종에서 만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아주 어린 아기들은 죄를 지을 수 없지만 크면서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유하였다. 이런 주장은 당연히 첫 사람 아담 이전 이미 죄도 있고 죽음도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피조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사건들, 엄청난 멸종의 증거들은 창조론으로 설명하기 힘들고, 도리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해석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신진화론이 신학적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더 위대한 것이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버슨 박사는 ‘한 사람의 범죄’로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는 창세기와 로마서의 기록을 거부하고, 대홍수 심판으로 인한 대규모 멸종도 진화론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다. 죄가 그렇게 진화되는 것이 진화를 통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필요성도 부정되고 마는 것이다.

기버슨 박사는 기적을 믿고 무신론적인 진화론은 배격한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은 과학과 신앙을 모두 지키려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모세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포도주 기적도 모두 비뻔에 의해 물질이 만들어진 것처럼 물질이 변화된 것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초월적인 능력으로 인한 기적을 단순히 믿는 것보다 물질의 변화로 기적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기적도 물질로 설명될 수 있으면 받아들여지지만, 물질 없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행해진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진리와 과학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은 인간이 이루어가는 지식 체계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며, 누적이고, 계속 변화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시간이 흐르고, 과학지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변화될 수 없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진화론과 성경에서 함께 진리를 찾는다지만 초월적 창조를 배제하고 물질과 과학에서만 진리를 찾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진리를 찾는 방법을 틀렸으니 진리가 찾아질 수 없는 것이다.

**“유신진화론자는 진리와 과학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은 지식체계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변하지만
진리는 시간이 흐르고, 지식이 많아져도 변화될 수 없다”**

이라고 해석했다. 즉, 퇴화기관처럼 과거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기능이 없는 쓰레기 DNA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DNA에 진화의 증거가 뚜렷하므로 진화론과 성경을 조화시킨 유신진화론(바이오로그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콜린스 박사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간계놈프로젝트 이후 진행된 많은 연구를 통해 쓰레기 DNA로 알려진 DNA들에 기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마치 퇴화기관이라고 부르던 기관들이 의학이 발전될수록 기능을 갖고 있음이 밝혀져 더 이상 퇴화기관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된 것과 유사한 길을 걸은 것이다. 이제 쓰레기 DNA가 있다는 주장은 거의 사라졌고, 도리어 과학자들은 DNA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DNA는 나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 신뢰?

기버슨 박사는 계속되는 논쟁에서 논리적으로 밀리는 것을 느꼈는지 진화론을 옹호하는 마지막 논리는 일반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과학자가

제에 몰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화 된 이론인 진화론을 배격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느끼지 못한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오기 전까지 천동설을 의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주류 이론인 천동설을 반대하고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진 것은 다수의 과학자들이 지지해서가 아니었다. 다수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 이론을 신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새로운 이론은 항상 소수의 사람에 의해 창조되기 때문이다.

기독교 핵심진리 위협하는 유신진화론

유신진화론의 진화론과 무신론자들의 진화론은 차이가 없다. 따라서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유신진화론의 진화론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럼에도 유신진화론은 진화론과 성경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화론과 성경의 조화는 성경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버슨 박사는 주장한다.

첫째, 창세기를 단순히(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의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그 의미를 충분히 담을 수 없으며, 엄청나게 다양한 신학적



서빙고 주차사역 팀원들이 교회 정문 앞 교차로에서 안내하고 있다.

“주차는 예배입니다”

서빙고 주차사역팀 봉사자 모집

서빙고 주차사역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시간은 매주 주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파티타임, 풀타임 봉사 가능)다. 교회 정문 및 교차로, 교회 후문(동작대교), 금강병원 및 반도아파트, 신동아아파트 주차장, 강북삼거리 교차로 등지에서 차량 입출차 및 보행자 안내를 담당한다. 주차사역팀에서 헌신할 성도는 오늘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1층 로비에 마련되는 안내데스크에 신청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의 총 주차가능 대수는 550대인데, 매주 주일 각 예배마다 차량 1,200~1,300대가 입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큰 혼잡 없이 질서

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주차사역팀의 헌신적인 섬김 덕분이다.

주차사역 봉사 30년 경력의 홍범식 장로는 “그동안 낮은 데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았다”며 “더 많은 성도들이 귀한 일꾼으로 자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성수 팀장(서빙고 주차사역팀)은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는 주차위원들은 천사들”이라며 “주차봉사로 예배드리고 싶은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문의: 010-4592-1652, 010-2696-1222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러브소나타 샷포로’ 참가자 추가 모집

‘러브소나타 샷포로’ 참가자를 추가 모집한다. A팀(5월 29일~6월 1일) 5명, B팀(5월 30일~6월 2일) 5명이다. 참가비는 106만원이다(항공, 호텔, 현지 체재비 일체).

러브소나타 샷포로 집회는 5월 30일(수)~31일(목) 와쿠와쿠홀리데이홀(샷포로시민홀)에서 막 오른다. 일본에서 열리는 27번째, 샷포로에서 열리는 두 번째 집회다. 러브소나타 참가자들은 행사 안내, 가스펠나이트 집회 참석, 일본 현지 교회 방문, 샷포로 문화체험 등을 한다.

한편 러브소나타 집회에서 사용할 화관을 제작할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미션홀에서 화관을 만들고 있다. 문의: 02-749-1149

샷포로에서 온 편지

“기도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홋카이도 샷포로에서 지난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러브소나타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직도 생생한데 이곳에서 또 다시 러브소나타가 열린다니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샷포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협력교회들이 모여 러브소나타 집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행정적 준비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주님의 영성이 깃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가스펠나이트 집회를 통해 샷포로 지역의 청년들이 헌신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러브소나타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이 뿌린 씨앗들이 러브소나타 집회로 이어져 샷포로와 주변 지역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샷포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카다 준이치 목사(러브소나타 샷포로 실행위원장)

‘부채탈출 119’ 참가자 모집

부채문제 진단과 해결방안 돕는 프로그램

‘부채탈출 119’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채탈출 119는 부채문제 진단과 해결방안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사회선교부에서는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2015년부터 부채탈출 119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은 전문가와 1:1로 이루어지고, 모든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보장 된다. 부

채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4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사회선교부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ej1890@hanmail.net)이나 팩스(02-6499-8272)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434

<http://sjmonnuri.org/loving-u-debt/>

평양과기대 정진호 교수

8일, 12일 초청 특강

평양과기대 정진호 교수가 통일위원회가 주최하는 살림기도회와 목요선교모임에서 특강을 한다. 4월 9일 저녁 7시 양재 온누리교회 JDS홀에서 열리는 살림기도회에서는 ‘통일, 역사의 비탈에 서다’를 주제로, 4월 12일 저녁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진행되는 목요선교모임에서는 ‘통일의 길, 상상에서 현실로’를 주제로 강의한다.

정진호 교수는 미국 코스타에서 선교사로 헌신했고, 25년 동안 북음, 통일, 부흥을 주제로 강의하며 디아스포라들을 섬겨왔다. 현재 토론토 방문교수와 평양과기대 교수로 재임 중이다. 저서로는 <예수는 평신도였다>, <떡의 전쟁>, <평동 박부장입니다>, <토라로 읽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등이 있다.

“어르신들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16주년 행사

지난 3일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하 용산복지관) 개관 16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 지역주민, 성장현 용산구청장 및 용산구의회의원, 봉사자 및 직원 등이 참석했다.

박종길 국사는 “어르신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함으

로써 행통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축복했고, 이성희 관장은 “용산복지관이 16년 동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정호욱 상임이사는 “긴 세월 한결같이 섬겨준 직원, 봉사자, 어르신들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청년에게 희망, 도전, 위로, 격려를!”

지난 1일 한성대에듀센터 2층 안디옥홀에서 청년희망 공간 ‘이룸’ 이전(移轉)예배를 드렸다. Pole2공동체 오전 11시, 길공동체 오후 2시, CH PLUS공동체 오후 5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렸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영상으

로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이 목사는 “이룸이 청년들에게 희망, 도전, 위로, 격려를 주는 하나님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김승수 목사는 “세상을 향해 부활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전하는 이룸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4월 15일 / 시간: 오후 3시 30분 / 장소: 양재 드림홀 / 대상: 2월 25일~3월 31일까지 등록성도

강남A 김숙자 변가령 손정민	심예지 윤유식	서준원 손광섭 윤영숙 정승원	임형순 도국 이혜숙 지윤규 최지원	경기A 박황범 이영희 지은영	분당B 권윤경 송영민 양성택	문효진 소순길 이원복 이재환	신선이 이호열	송파 박은비 안웅준	유소영 이숙영 홍선우 홍진호	주환진 진우승
강남B 강미숙	강남C 김혜선 김성환 박성연	강남D 박정아	분당A 김인향	서초A 김미정	서초B 김지희	서초C 김옥란 안미진	양재 김광현	푸른누리 정지훈		



샷포로 기·도·제·목

- 4월 9일(월) 여호와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러브소나타가 되도록
- 4월 10일(화) 일본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 4월 11일(수)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헌신자로 거듭나는 러브소나타가 되도록
- 4월 12일(목) 이재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 4월 13일(금) 스태프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셔서 최선의 준비가 되도록
- 4월 14일(토) 더 많은 일본 교회와 성도들이 협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 4월 15일(주일) 모든 환경과 날씨를 지켜주셔서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 양재 사랑부 세례식 간증



/ 성지은 성도(서초B공동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폐장애를 가진 둘째 딸 도연이를 키우면서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도연이는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다.

세상은 자녀에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 “불쌍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복 되도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면서부터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 성경을 읽을 수 없어도, 설교 말씀을 모두 이해할 수 없어도 성령님께서 도연이와 함께하셨다. 성령님은 도연이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신실하게 가르쳐 주셨다. 도연이는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좋아한다. 찬양할 때면 기뻐서 춤을 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성장했다.

정말 감사하게 도연이가 이번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다. 6주 동안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았음을 고백하는 교육도 받았다.

도연이가 세례 받는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무릎 꿇고 앉은 도연이 머리 위로 물이 떨어졌다. 도연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옛 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순간이었다. 예수님의 생명이 도연이 안에 계심을 믿었더니 감동과 감사가 넘쳤다. 예수님과 연합한 도연이는 이제부터 엄마의 손이 아닌 예수님과 손잡고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 분은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팔린 양들을 고이고이 이끄신다”(사 40:11).

하나님의 사랑은 지혜와 지식 있는 자에게 있지 않고, 지위가 높고 낮음에 있지 않음을 도연이를 통해 알려 주셨다. 나는 도연이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팔로 도연이를 영원토록 안아주신다. 나는 자녀들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도연이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아바 하나님’ 이시다. 연약한 자녀를 통해 내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 CGNTV 대만 지사 직원 간증



/ 황치원 PD(CGNTV 대만)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저는 CGNTV 대만 지사에서 ‘10분 메시지’와 ‘세미나’를 담당하고 있는 황치원 PD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즈음 복음을 전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CGNTV에서 사역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학생 시절 생사가 갈릴 정도로 큰 사고가 났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CGNTV를 섬기라며 저를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CGNTV에서 일을 시작할 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긴장이 많이 됐고,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CGNTV 동료들과 목회자, 출연자들이 격려해주시고, 포용해주시고, 이해해주셨습니다. 촬영에 필요한 기술은 목사님께서 많이 가르쳐주셔서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CGNTV는 굉장히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임직원들의 사명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 사명은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입니다. 저 역시도 한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꿈이 있습니다.

CGNTV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CGNTV 프로그램들을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소개해주면 다들 좋아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는 매일 중국어 QT를 시청합니다. 영성프로그램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CGNTV 대만지사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적고 경비도 턱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CGNTV 대만 지사에 걸려있는 말씀을 보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공급해주시리라 믿습니다. CGNTV 대만 지사와 중화권 선교를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내가 만난 하나님



/ 김동현 형제(SNS공동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롬 8:28).

하나님께서 나의 이십대 시절 대부분과 서른둘이 된 지금까지 거의 쉬지 않고 다양한 섬김의 기회를 주셨다. 대학입시 재수생 시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주셨다. 어쩌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암시가 아니었을까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들었던 순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미한 존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기 때문이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인생의 초점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 싶었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여러 사역을 하면서 어떤 종류의 사역이든지 내 마음과 능력으로는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

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얼마나 작고, 내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역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많다. 내 생각대로 내린 결론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지금은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기 때문이다.

새가족그룹을 섬기면서 처음 본 모든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는 품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비로소 품고 섬길 수 있었다. 내가 가진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나와 성향이 다른 순원들을 내 마음으로 품으려고 하면 지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품을 수 있었다.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는 것도 나의 마음과 능력으로 하면 탈진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신다. 매일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 청년과 하나님



/ 국영기 형제(인천 온누리교회)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홀리밀’을 시작한지 어느덧 1년 반 정도 됐다. 홀리밀은 청년들이 이른 아침에 모여 말씀을 읽고 나누는 모임이다. 나는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거의 30년 가까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했다. 어느 날 교회수련회에서 알게 된 형이 홀리밀에 한 번 나와 보지 않겠냐고 권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에 1번 정도 겨우 나갔다. 그런데 홀리밀에서 알게 된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때마다 내 마음이 움직였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때부터 나도 마음을 열고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신앙공동체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홀리밀에는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친구들이 많다. 동질감을 느꼈다. 이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교회에서 활동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잘 몰랐다.

그래서 마음이 매우 답답했다. 그때 알게 된 홀리밀 식구들이 나를 정말 많이 도와줬다. 점점 교회생활이 재미있어지고 홀리밀에 자주 참석하게 됐다.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가던 것이 서너 번으로 늘었고 지금은 거의 매일 간다. 하나님께서는 홀리밀을 통해서 나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변화시키셨다. 모든 삶의 패턴이 하나님께 맞춰졌다. 더 이상 세속적인 것들이 재미가 없다. 어느 날 전도사님께서 “네가 홀리밀을 맡으면 어떻게냐?”라고 물으셨다. 사실 부담이 됐다. 나의 신앙이 아직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홀리밀에 대한 마음을 부어 주셨다.

홀리밀을 맡고 나서 어려움이 있었다. 교만하게 내 생각대로 진행하려고도 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홀리밀 식구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홀리밀을 귀중하게 여기신다고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홀리밀에 간다.

장로칼럼

죽으면 죽으리라!



김명중 장로
(서빙고공동체)

나는 경상북도 경주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경주시내 법화종단인 포교당 불교학생회에 등록해서 매주 주일마다 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듣고 배웠다. 수요일 저녁에도 불교의 교리를 배웠다. 내가 다니던 포교당은 아내의 아버지가 주지스님으로 계신 곳이었다. 내 아내는 스님의 딸이었고 절에서 생활했다. 어머니께서는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 놓으시고 공들여 빌곤 했다. 경주를 떠나 대구에서 생활하게 되면서부터 불교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경상북도 도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35세 이전에 승진해서 시장이나 군수로 발령받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 그런데 승진 때마다 발령을 받지 못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공무원 교육원에서 행정학 교수로 발령받아 교육생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공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나에게 결코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상의 소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공직에서 조기퇴직하게 하셨다.

서울 용산 미8군 수송부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우리 가정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었다. 불교에서는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없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참 기쁨을 찾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비로소 참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 가정은 지금

미얀마에 선교하러 가 있는 큰딸의 인도로 구원을 받게 됐다. 어느 주일 아침 큰딸이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가자고 했다. 그날 우리 가족 모두 서빙고 온누리교회 2부 예배를 드렸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빛 한줄기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성령의 은혜였다. 요한일서 5장 말씀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모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 나는 주말에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다. 말씀훈련을 3년 동안 열심히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한 갈등을 허락하셨다. 영혼구원에 대한 목마름이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행 20:24).

하나님은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부족하고 미약한 나를 69세에 부르셨다. 나는 4월 1일 미얀마 파웅지 지역 일반사역자로 파송됐다. 파웅지는 인구 10만 명이 살고 있는 미얀마 제2의 도시이다. 4개의 대학에서 4,000명의 학생들이 복음의 불모지인 이곳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 이곳은 불교의 초강성 지역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숙학교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양육 받은 현지인들을 리더로 세우면서 복음 전하는데 힘을 것이다. 지금은 물질이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한다. 69세란 나이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잡고 나아간다.

권사칼럼

청년 결혼매칭사역 ‘iWe’



고성란 권사
(강남B공동체)

나는 대학청년부 멘토로서 청년들을 돕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청년 결혼매칭사역 ‘iWe’를 섬기게 됐다.

많은 청년들이 관심은 있는데 경제적 불안감과 서로를 향한 헌신적 사랑이 부족해서 결혼을 미루고 있다. 또한 스펙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쌓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혼자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인생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다. 결혼과 사랑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책임과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편안함과 이익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젊은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정을 이뤄야 할 필요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결혼이 2차적인 선택이 되어 버렸다. 결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적령기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을 안타깝게 여긴 대학청년부 멘토들이 모여 기도한 끝에 ‘iWe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 결혼에 대해 닫혀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결혼은 완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에 의지해서 부족한 두 사람이 평생 사랑하고, 돕고,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관계이다. 서로 노력하고 배우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때때로 형제자매들이 나를 찾아와 묻는다.

“제 주위에는 이성이 없어요. 제 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마다 나는 “이성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지”라고 얘기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순예배에 참석할 것을 권한다. 봉사활동과 아웃리치, 직장동호회 활동도 권한다. 그리고 iWe 프로그램을 소개해준다. 결혼매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생을 함께 할 동반자를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iWe 프로그램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근거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명령에 순종하도록 돕고 있다. 그들이 참 예배자로 세워지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창 1:28).

iWe 프로그램에서는 멋진 남자 되기, 멋진 여자 되기, 회복과 출발, 결혼을 위한 세미나, 굿매너(Good manner), 스타일링, 결혼과 관련된 책 저자와의 만남 등의 활동을 통해 결혼을 향한 길을 제시하고, 크리스천 청년들이 만나는 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 사역이 온누리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한국 교회에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iWe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커플들이 결혼하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청년들의 결혼관이 바뀌고, 귀한 만남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한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건전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바란다.

문의: iweonnuri4u@gmail.com

신앙에세이



이민욱 목사
(천양사역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순서를 눈여겨보는 성도들은 찬양이 늘 먼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성가대로 이어지는 순서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며, 심지어는 이단들도 비슷한 구성을 흉내 내고 있다. 찬양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늦게 들어오는 성도들을 위한 배려의 시간일까? 그렇지 않다. 예배에서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역대하 20장에 나타난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의 노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암과 암몬, 세일산 거민으로 구성된 연합군의 공격을 받자 유다왕 여호사밧은 백성들

을 여호와와 새 뜰에 모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의 기도는 찬양(6절), 악속(7~9절), 상황(10~11절), 간구(12절)의 4단계로 구성되는데 간구가 가장 마지막이고, 가장 먼저 고백되는 기도는 오히려 찬양이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이것이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하 20:6).

위기가 찾아오면 보통 간구가 먼저 나오게 되지만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찬양을 먼저 올려 드렸다. “살려달라”는 간구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고백하는 찬양이 먼저이다. 이 올바른 성경적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받았고 명하신 대로 조직한 성가대는 적

노래하는 하나님의 군대

군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승리했다.

성가대의 ‘대’는 군대의 대(隊)와 동일하다. 성가대는 노래하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다. 역대하 20장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뿐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에 왜 찬양이 먼저인지를 알게 해준다.

찬양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다. 찬양은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시간도 아니며, 무엇인가를 위해 줄어들어야 할 시간도 아니다. 찬양은 강력한 무기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비성경적이며 교회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화려한 멜로디와 아름다운 곡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찬양에 실어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분께서 함

께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찬양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이며 동시에 그분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한 마음의 고백이다. 온누리교회는 찬양의 중요성을 아는 교회이다. 개인의 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주와 동행하는 백성들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선포하는 시간임을 알기에 온누리교회의 예배는 감사와 감격이 있다.

하나님은 온누리교회 뿐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며 노래하는 하나님의 군사요 군대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 빈 가지가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채워지는 봄, 여호사밧과 노래하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고백으로 가득차기를 소망한다.

Acts29 게시판

2018년 4월 8일(주일) | 제1191호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홍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3: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 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재)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온누리가족 나무동생(공원모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일본어예배 베이비시터 봉사자모집

일시: 4/13~7/20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문의: 박금실 권사(010-2846-5002)

CGNTV 세라핌 합창단 모집

오디션: 매 주일2시 자유곡1곡(악보지참)

대상: 초등2학년 이상

문의: 신금실(010-4775-2403)

사이닝글로리(양식당) 알바 모집

근무: 주말 오전 7시~오후 1시

문의: 박미란 팀장(010-3785-4929)

CMN 마노아팀 국내 아웃리치

장소: 평택 온누리교회 인도네시아 공동체

일시: 4월 15일 주일

사역: 외국인 의료, 미용, 사진, 전도 등

문의: 이대현 팀장(010-3387-7764)

온누리교회 세계관학교

일시: 4월 25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B2 콘서트를

문의: 남진희 간사(02-3215-3637)

선교사 숙소 물품 기증 요청

모집: 에어컨, 냉장고(양란), 김치냉장고

장소: Acts29비전빌리지 선교사숙소

문의: 031-331-8182, kona@onnuri.org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나침반+plus

신앙 안에서 지식과 재미를 전하는 에듀톡[Edu-talk] 프로그램



시련  사랑

건강하고 사랑 넘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 4월 13일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편
갈등을 줄이는 크리스천 가정의 올바른 재정사용원칙은?
- 4월 20일 <하나뿐인 나, 역할 전쟁기>편
역할 점수를 통해 알아보는 역할 스트레스 극복방법
- 4월 27일 <멀고도 가까운 관계, 가족>편
화목한 가정을 위한 관계의 기술



방송시간 :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20분

출연: 가수 박지현, 박재연 대표, 방송인 이지희, 채경선 교수, 개그우먼 김경아

CGNTV